

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0년 11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0년 11월 광공업 생산은 컴퓨터, 기타운송장비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함. 반면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금융·보험, 운수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4.4%), 기계장비(27.9%), 자동차(12.3%)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컴퓨터(-5.1%), 기타운송장비(-1.3%), 나무제품(-2.2%)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9.7%), 금융·보험(8.9%), 운수(7.8%), 도매·소매(6.2%)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24.1%), 전문·과학·기술(-2.8%)부문에서는 감소함.
 - 2010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6.9%,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2.3%,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10.2%,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2.7% 증가함.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 건축공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공사 발주부진과 토목공사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48.7%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6%로 전월보다 0.8%p 하락함. 이는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월 선행종합지수의 하락 때문임.

◆ 2010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5% 상승(생활물가지수 3.9% 상승)

○ 2010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8(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1.8%)만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에서는 10.6% 상승함.

－ 2010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19.8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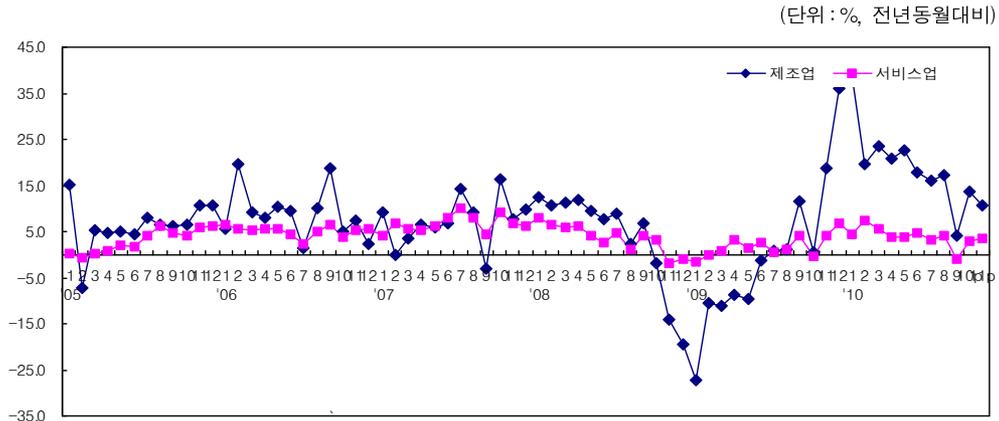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	3/4	11월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18.1	25.8	19.5	11.8	10.4(1.4)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18.8	26.8	20.2	12.1	10.6(1.3)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15.5	21.8	17.2	11.2	11.0(1.6)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13.9	21.2	15.4	8.2	8.0(1.1)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17.5	22.5	19.7	15.1	15.0(-0.9)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4.2	5.7	4.0	2.3	3.6(0.8)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7	9.9	4.9	7.4	6.9(2.9)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10.1	25.5	24.5	27.7	4.5(-0.6)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3.5	2.7	2.6	2.9	3.5(0.6)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1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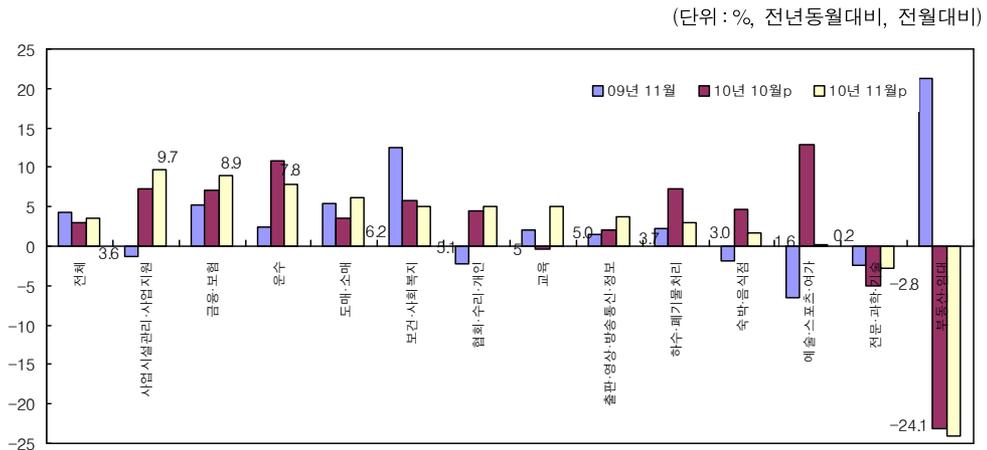
- 2010년 12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33.8% 각각 상승함.
- 201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9%, 생활물가지수는 3.3%, 신선식품지수는 21.3%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0. 12), 『201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고용률 증가

- 2010년 경제활동인구는 24,748천 명으로 전년대비 354천 명(1.5%)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92천 명으로 174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0,256천 명으로 180천 명(1.8%) 증가하였음.
-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0%)이 전년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49.4%)은 전년대비 0.2%p 증가함(그림 3 참조).
- 2010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증가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1%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7.8%로 전년대비 1.0%p 증가하였음.
- 2010년 취업자는 23,829천 명으로 전년대비 323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915천 명으로 전년대비 181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914천 명으로 전년대비 142천 명(1.5%)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0년 실업자는 920천 명으로 전년대비 31천 명(3.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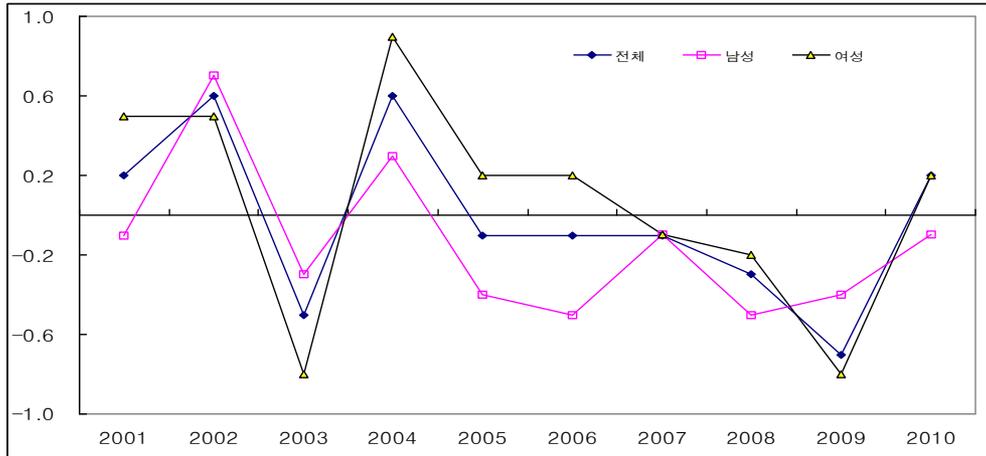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2010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394 (0.2)	24,448 (0.2)	24,063 (0.1)	24,748 (1.5)	24,796 (1.4)	24,538 (2.0)
참가율	61.9	61.8	61.5	60.8	60.7	59.7	61.0	60.8	60.1
취업자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506 (-0.3)	23,631 (0.0)	23,229 (-0.1)	23,829 (1.4)	23,989 (1.5)	23,684 (2.0)
고용률	59.7	59.8	59.5	58.6	58.7	57.6	58.7	58.9	58.0
실업자	827	783	769	889	817	834	920	808	853
실업률	3.5	3.2	3.2	3.6	3.3	3.5	3.7	3.3	3.5
비경제활동인구	14,784 (1.6)	14,954 (1.2)	15,251 (2.0)	15,698 (2.9)	15,829 (3.0)	16,253 (3.0)	15,841 (0.9)	15,962 (0.3)	16,265 (0.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1. 1),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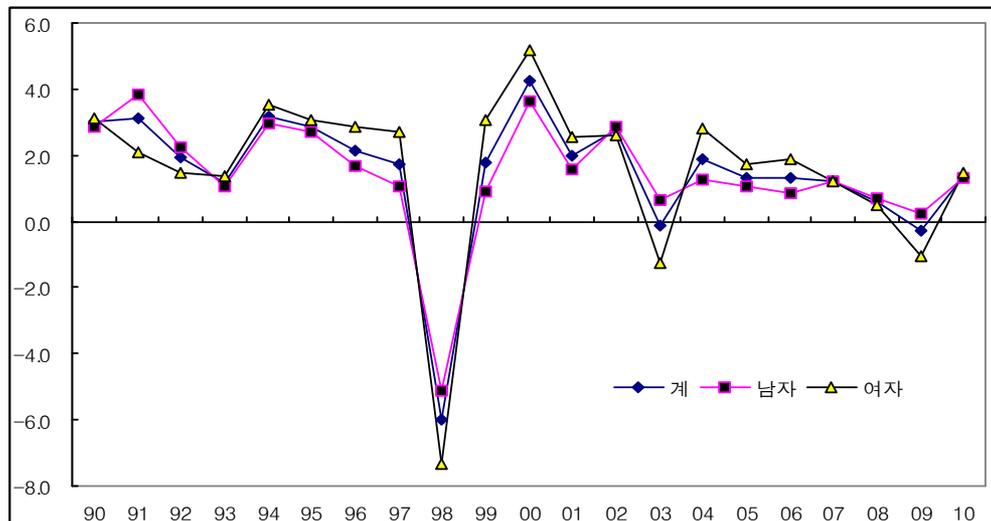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77천 명으로 전년대비 7천 명(-1.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42천 명으로 전년대비 38천 명(12.5%)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3%로 전년대비 0.3%p 증가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0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841천 명으로 전년대비 143천 명(0.9%)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6천 명으로 전년대비 78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85천 명으로 전년대비 65천 명(0.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305천 명으로 12천 명(0.3%), 구직단념자는 220천 명으로 전년대비 58천 명(36.0%)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18천 명으로 전년대비 56천 명(-3.8%)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크게 증가

- 2010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91천 명, 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7천 명, 2.2%), 전기·운수·통신·금융업(73천 명, 2.6%), 건설업(33천 명, 1.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2천 명, -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7천 명, -1.2%)에서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이 2010년 크게 증가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4/4분기		2010	4/4분기	
					12월	12월			
전 산업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506 (-0.3)	23,631 (0.0)	23,229 (-0.1)	23,829 (1.4)	23,989 (1.5)	23,684 (2.0)
농림어업	1,785 (-1.7)	1,726 (-3.3)	1,693 (-2.0)	1,648 (-2.2)	1,579 (-6.9)	1,231 (-12.1)	1,566 (-5.0)	1,544 (-2.2)	1,231 (0.0)
제조업	4,167 (-1.6)	4,119 (-1.1)	4,079 (-1.0)	3,836 (-3.2)	3,862 (-1.2)	3,872 (-0.4)	4,028 (5.0)	4,131 (7.0)	4,156 (7.3)
건설업	1,835 (1.1)	1,850 (0.8)	1,819 (-1.7)	1,720 (-5.0)	1,704 (-5.9)	1,701 (-3.3)	1,753 (1.9)	1,761 (3.3)	1,726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62 (-0.8)	5,726 (-0.6)	5,677 (-0.8)	5,536 (-2.4)	5,511 (-2.6)	5,567 (-2.3)	5,469 (-1.2)	5,442 (-1.3)	5,488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251 (4.7)	7,600 (4.8)	7,900 (4.0)	7,981 (4.6)	8,149 (4.6)	7,994 (3.4)	8,158 (2.2)	8,234 (1.0)	8,186 (2.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33 (3.9)	2,393 (2.6)	2,389 (-0.2)	2,761 (-0.9)	2,802 (1.8)	2,842 (3.4)	2,834 (2.6)	2,855 (1.9)	2,871 (1.0)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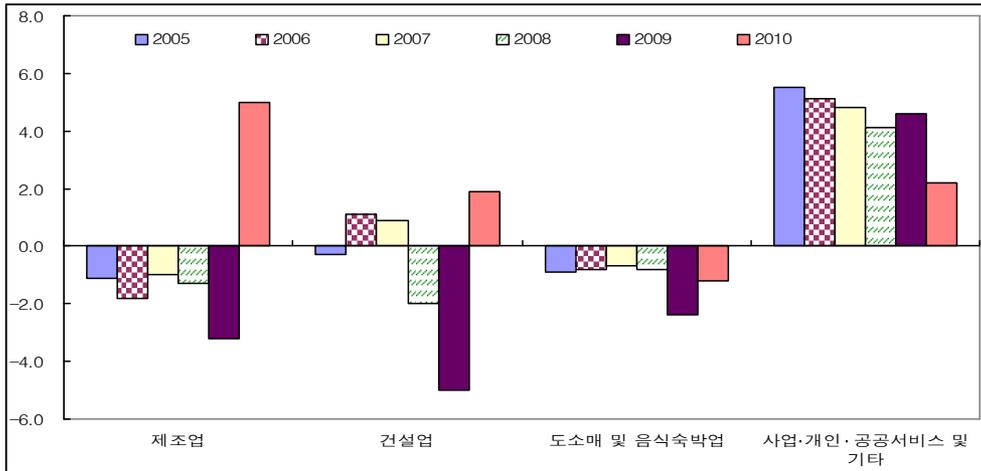
2) 9차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1),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0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58천 명으로 전년대비 194천 명 (-2.7%)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971천 명으로 전년대비 517천 명(3.1%)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086천 명으로 697천 명(7.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68천 명으로 34천 명(-0.7%), 일용근로자는 1,817천 명으로 146천 명(-7.5%)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증가추세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임(그림 6 왼쪽 참조).
- 2004년 이후 비임금근로자 감소추세가 지속적임(그림 6 오른쪽 참조).

○ 2010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17천 명으로 전년 대비 507천 명(16.3%)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839천 명으로 193천 명(-1.0%) 감소함.

◆ 20~30대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

○ 2010년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20~29세(-10천 명), 30~39세(-5천 명)는 감소한 반면, 15~19세(3천 명), 40~49세(2천 명), 50~59세(6천 명), 60세 이상(35천 명)에서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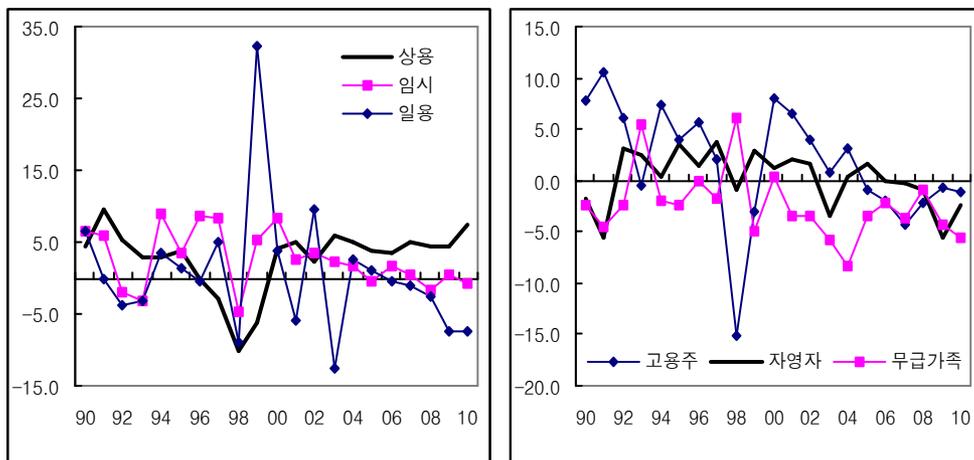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2010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506 (-0.3)	23,631 (0.0)	23,229 (-0.1)	23,829 (1.4)	23,989 (1.5)	23,684 (2.0)
비임금근로자	7,600 (-0.9)	7,463 (-1.8)	7,371 (-1.2)	7,052 (-4.3)	6,952 (-5.3)	6,674 (-5.4)	6,858 (-2.7)	6,778 (-2.5)	6,531 (-2.2)
자영업주	6,135 (-0.6)	6,049 (-1.4)	5,970 (-1.3)	5,711 (-4.3)	5,600 (-4.7)	5,514 (-4.6)	5,592 (-2.1)	5,514 (-2.6)	5,387 (-2.3)
무급가족 종사자	1,466 (-2.2)	1,413 (-3.6)	1,401 (-0.9)	1,341 (-4.2)	1,292 (-7.9)	1,161 (-9.1)	1,266 (-5.6)	1,264 (-2.2)	1,144 (-1.5)
임금근로자	15,551 (2.4)	15,970 (2.7)	16,206 (1.5)	16,454 (1.5)	16,678 (2.4)	16,555 (2.3)	16,971 (3.1)	17,211 (3.2)	17,154 (3.6)
상용근로자	8,204 (3.6)	8,620 (5.1)	9,007 (4.5)	9,390 (4.3)	9,621 (5.7)	9,632 (6.2)	10,086 (7.4)	10,320 (7.3)	10,347 (7.4)
임시근로자	5,143 (1.7)	5,172 (0.6)	5,079 (-1.8)	5,101 (0.4)	5,167 (2.1)	5,074 (-0.2)	5,068 (-0.7)	5,052 (-2.2)	4,999 (-1.5)
일용근로자	2,204 (-0.4)	2,178 (-1.2)	2,121 (-2.6)	1,963 (-7.4)	1,891 (-11.1)	1,849 (-9.3)	1,817 (-7.5)	1,838 (-2.8)	1,808 (-2.2)
36시간 미만	2,810 (0.6)	3,022 (7.5)	3,447 (14.1)	3,110 (-9.8)	2,961 (4.5)	3,126 (-1.4)	3,617 (16.3)	3,090 (4.4)	3,276 (4.8)
36시간 이상	20,020 (1.5)	20,081 (0.3)	19,781 (-1.5)	20,032 (1.3)	20,404 (-0.7)	19,826 (0.3)	19,839 (-1.0)	20,620 (1.1)	20,114 (1.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2011. 1),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0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19세(11.9%, -0.3%p), 20~29세(7.8%, -0.1%p), 30~39세(35%, -0.1%p)는 소폭 감소한 반면, 40~49세(2.5%, 0.1%p), 60세 이상(2.8%, 1.2%p)은 증가하였고, 50~59세(2.5%, 0.0%p)는 전년대비 동일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고졸(4.2%, -0.2%p)에서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3.0%, 0.5%p)와 대졸 이상(3.6%, 0.1%p)에서는 증가함.

○ 2010년 전체 실업자 92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4천 명으로 전년대비 5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76천 명으로 26천 명 증가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2010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827(3.5)	783(3.2)	769(3.2)	889(3.6)	817(3.3)	834(3.5)	920(3.7)	808(3.3)	853(3.5)
15~29세	364(7.9)	328(7.2)	315(7.2)	347(8.1)	320(7.6)	324(7.6)	340(8.0)	297(7.1)	336(8.0)
30~39세	191(3.0)	198(3.2)	194(3.1)	220(3.6)	202(3.3)	203(3.4)	214(3.5)	194(3.2)	193(3.2)
40~49세	152(2.3)	135(2.0)	142(2.1)	163(2.4)	151(2.3)	152(2.3)	165(2.5)	151(2.2)	147(2.2)
50~59세	85(2.2)	87(2.1)	87(2.0)	114(2.5)	104(2.2)	110(2.4)	120(2.5)	114(2.3)	121(2.4)
60세 이상	36(1.4)	36(1.4)	32(1.2)	45(1.6)	41(1.5)	46(1.9)	80(2.8)	53(1.9)	56(2.2)
중졸 이하	136(2.4)	119(2.1)	118(2.2)	130(2.5)	119(2.3)	137(2.9)	154(3.0)	112(2.2)	132(2.8)
고졸	420(4.1)	389(3.8)	384(3.8)	437(4.4)	393(4.0)	403(4.1)	420(4.2)	392(3.9)	424(4.2)
대졸 이상	272(3.4)	275(3.2)	268(3.0)	321(3.5)	306(3.2)	295(3.1)	346(3.6)	304(3.1)	298(3.1)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41	42	39	36	44	44	38	47
취업유경험 실업자	784	742	727	849	781	791	876	770	806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1),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0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0년 3/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실질로는 3.0%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6.6%)과 사업소득(5.9%), 이전소득(6.8%)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소득(-18.1%)은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의 가사용품·가사서비스(15.3%), 의류·신발(10.1%), 식료품·비주류음료(10.0%) 등의 지출항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8% 증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09		2010			
	3/4분기		2/4분기		3/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456.3	-0.7	3,551.7	7.7	3,666.0	6.1
실질	3,050.6	-2.6	3,072.5	4.9	3,143.6	3.0
경상소득	3,351.4	0.2	3,425.7	7.6	3,563.6	6.3
근로소득	2,276.4	-0.4	2,284.1	5.9	2,426.0	6.6
사업소득	763.7	2.5	814.2	11.3	809.0	5.9
재산소득	14.9	-18.6	13.7	-10.6	12.2	-18.1
이전소득	296.4	0.0	313.7	12.7	316.5	6.8
비경상소득	104.9	-21.4	126.0	8.3	102.4	-2.4
소비지출	2,197.2	2.7	2,211.3	6.8	2,313.0	5.3
실질	1,953.7	1.2	1,938.9	4.7	2,009.3	2.8
처분가능소득	2,835.2	-0.5	2,891.2	6.8	2,970.7	4.8
흑자액	638.0	-10.2	679.9	7.0	657.8	3.1
흑자율	22.5	-2.4p	23.5	0.0p	22.1	-0.4p
평균 소비성향	77.5	2.4p	76.5	0.0p	77.9	0.4p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등)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 통계청(2010. 11), 『2010년 3/4분기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등) 지출은 소득증가 영향으로 12.5% 증가하였고, 소득 및 가입자 증가로 연금지출은 10.3%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건강보험료 등)과 이자비용 지출은 각각 9.9%, 17.3% 증가하였음.

○ 2010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1분위 소득 증가율(13.6%)은 5분위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1분위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율은 각각 10.1%, 15.9%로 나타나며, 5분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5.8% 3.1%로 나타남.

〈표 7〉 2인 이상 전국가구의 5분위별(2/4분기)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가구원수(명)	2.63		3.19		3.46		3.63		3.71	
가구주 연령(세)	56.3		47.2		46.1		45.5		46.5	
소득	1,058.3	13.6	2,329.0	9.3	3,274.0	6.9	4,404.7	6.5	7,263.0	3.4
경상소득	1,009.8	11.0	2,277.3	8.1	3,218.5	6.2	4,342.5	6.6	6,968.8	5.0
근로소득	469.7	10.1	1,377.0	9.6	2,082.7	7.8	3,005.9	5.3	5,193.6	5.8
사업소득	212.2	6.1	564.8	0.7	830.3	4.4	1,041.3	14.6	1,396.1	3.1
재산소득	5.4	12.1	4.8	-31.1	12.6	-9.8	15.4	8.5	22.8	-34.0
이전소득	322.6	15.9	330.8	17.4	292.9	1.9	279.9	-5.2	356.3	5.1
비경상소득	48.5	124.5	51.7	107.5	55.4	70.2	62.2	0.5	294.2	-23.3
가계지출	1,429.6	6.5	2,162.0	9.2	2,768.5	5.9	3,656.8	10.6	5,023.7	3.6
소비지출	1,188.6	5.0	1,761.6	8.9	2,201.4	5.0	2,817.0	8.9	3,595.8	1.2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5분위별 소득은 가구원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월별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분위기를 나누어 평균한 것으로 소득분배와 무관함.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1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1월 26일 기준)는 31,391일로 집계됨.

〈표 8〉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1. 31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1	2	-
종 결	0	1	-
진 행	1(11)	1(4)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1,391	33,712	-6.9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월 26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현황 발표(2010년 12월 말 기준)

○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에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1,624개소(86.5%)라고 밝힘. 이 중 단협이 체결된 사업장은 943개소,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681개소임.

지도대상사업장	(잠정)합의 사업장		
	합 계	한도 준수	한도 초과
1,878	1,624	1,598(98.4%)	26 (1.6%)

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사업장(금융,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2010년 12월 말 이전에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

—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90.7%, 민주노총 소속 79.3%, 미가입사업장 87.0%가 (잠정)합의

한국노총(1,027)			민주노총(613)			미가입(238)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931 (90.7%)	929	2	486 (79.3%)	462	24	207 (87.0%)	207	0

— 면제한도를 도입한 1,624개소 모니터링 결과, 면제한도를 초과한 54개소에 대해 단협을 개정토록 시정조치

※ 자율시정지도(4개소), 지노위 의결요청(1개소), 시정명령(14개소), 시정완료(28개소), 사법처리(7개소)

◆ 고용노동부, '채불임금 조정업무에 민간전문가 활용' 발표

○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채불제로서비스팀』을 2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힘.

- 그간 체불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만 했지만, 향후에는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선행
 - 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사업주는 민간조정관의 사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지난 해 3개월(9.6~12.3) 동안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을 대상으로 『체불제로 서비스팀』(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
- 민간조정관 1인당 월평균 해결건수 37.7건 <민간기업 경력자 51.9건>
 - 시범운영기관 민간조정관: 기업 인사노무경력자(4), 공인노무사(3), 노동행정 경력자(2)
 - 고용노동부는 시범실시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2~4월중에 민간조정관 160여명을 선발하여 위촉할 예정임.

◆ 한국노총, 제23대 임원선거 결과

- 1월 25일(화) 한국노총 제23대 임원선거(위원장-사무총장) 결과, 이용득-한광호 후보 조 당선
- 1차 투표에서 총투표자 2,611명 중 1,396명(53.5%) 지지로 과반 득표
 - ※ 위원장 당선자 주요 공약: ▲정책연대 즉각 파기,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연계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통한 노조 사수 ▲현장을 통한 조직 확대 ▲노동유연화 분쇄, 사회양극화 해소 등
 - 16:30~16:40 이용득 위원장 당선자는 당선 결정 후 투표장소인 KBS 88체육관 무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 개최
 - ※ 기자회견 주요 내용: ▲취임과 동시에 정책연대 파기할 것임(2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파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노동정책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므로 이를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며, 상호협의를 해서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공조해 나갈 것임. 노동계의 위기상황에서 공조할 것이 많을 것임,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 현장이 주인이므로 현장과 함께 할 것임, ▲노사정위원회 역할에 대해 재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참여해서 노동자를 대변할 것이며, 그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얻은게 없으므로 앞으로는 노조에 이익되는 부문에만 참여할 것임.

◆ 민주노총, 노동부 사내하청 실태점검에 대한 논평 발표

- 1월 31일(월)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 조작이나 다름없다』 제하의 논평 발표
 - 지난해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공동조사는 물론 전수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채 25개 사업장에 대한 표본조사만 실시했고, 그 결과 단 4곳에서만 불법과건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 대법 판결 등 노동부의 기존 불법과건 판단근거를 뛰어넘는 법원의 불법과건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실시하였고, 당연히 대법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방식으로 실태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노동부는 판결 이전 점검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이는 면피성 조사이자 조작이나 다름없는 예정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 노동부는 이제라도 법원 판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사내하청 실태점검 재실시를 촉구

◆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논의 시작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로 촉발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1월 25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출범
 - ※ 주요 의제
 -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 라인 · 사내하도급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 근로자파견제도 개선 논의
 - ▲ 비정규직 차별개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3→6개월로 연장
 - ▲ (정규직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 ※ 위원회 구성: 위원장(박영범 한성대 교수), 노·사·정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7명 참여
- 이에 민주노총은 1월 25일(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의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문제다』 제하의 논평 발표

- 노사정위원회가 오늘(1.25) 한시적(1년) 기구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노동시장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정규직 등 차별 개선·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 논의의 방향 자체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위원회의 출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 주요 주장내용: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한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을 내세운 것은 사용자가 주도하는 임금구조(성과급)로 바꾸려는 의도임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명분삼아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꾀할 우려가 있음 ▲사내하청의 문제는 노사간 갈등과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의 문제임

◆ 대우자동차판매

- 1월 31일(월) 노조 조합원 80여명,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회사 4층 및 5층 복도, 5층 회의실, 회사 정문 점거농성 계속
 - ※ 1월 26일까지 100여명이 점거농성하였으나, 1월 27일(목) 수도권 거주 일부 인원(20여명) 이탈
- 1월 31일(월) 사측, 정리해고 최소화를 위해 이날 23:00까지 1월 28일 해고(1.31<월>자) 통지한 264명 대상 추가 희망퇴직 모집(1.29~1.31<월> 21:00 34명 신청) → 현재 정리해고 대상자는 230명
 - ※ 정리해고 대상 230명: 당초 해고계획인원 388명에서 158명(자연퇴사 52명, 희망퇴직신청 106명) 제외 인원
- 그간 2006년 10월 2일 사측, 자동차판매 직영부문과 대리점부문 중 직영부문 분할 운영 관련 DW&직영판매(주) 신설 → 2006년 10월 11일 임직원 533명을 DW&직영판매(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노조는 전적 거부('06.12.1 조합원 214명,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 2007년 1월 18일 인천지법, ‘노조원들이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가처분 결정 → 2007년 1월 31일 사측, 대우자동차판매(주) 인사부로 대기발령
 - 2010년 3월 9일 GM대우측, 총관계약 해지 → 3월 31일 사측은 위탁영업 철회하고, 4월 1일 조합원 171명 대기발령 → 4월 14일 워크아웃 결정(산업은행 등 채권

단 92% 동의)

- 11월 29일 사측, 영안모자(대우버스 최대주주)와 회사 분할(2011년 2월 자동차판매부문과 건설부문 분할 예정)을 통해 새롭게 설립되는 대우자동차판매 신설법인 인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 12월 30일 사측, 인천북부지청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572명 중 388명 <67.8%>, 2011.1.31자 해고) 신고서’ 제출
 - ※ 해고계획 주요 내용: ▲대상인원: 388명(관리직/관리영업직 149명, 승용영업직(노조) 171명, 트럭영업직 67명, 정비직 1명) ▲해고예고: 1.25(1.31자 해고)
- 2011년 1월 12일 사측, 관리직협의회 및 트럭영업직협의회와 정리해고 대상 인원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
 - ※ 합의내용 ▲정리해고 대상 인원: 200명(관리직 133명<당초 신고인원 149명 중 16명 퇴사>, 트럭영업직 67명) ▲정리해고 일자: 1.31(월) ▲희망퇴직 모집기간: 1.17(월)~1.21(금) ▲특히, 관리직협의회와는 직위별 150~330만 원 반납(채불임금으로 정산) 및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시 임금반납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가점(3점) 부여 합의
- 1월 26일 사측, 지회장(김진필) 등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 흥익대 환경미화·경비원

- 1월 31일(월) 조합원(환경미화·경비원 등) 140여명, 고용보장(고용승계)을 요구하며 흥익대 본관 총무과 사무실 및 로비에서 1월 3일부터 교대로 철야농성 계속
 - ※ 노조는 대학측의 안일한 대처로(기존 용역단가로 용역계약기간 3개월 연장 주장 등) 용역계약 갱신협상이 결렬되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학측에 대화 요구 ↔ 흥익대는 ‘선 농성해제, 후 대화’ 입장 고수
 - 11:00경 농성조합원들은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된 백상기업 등 3개 업체를 항의방문,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 그간 2010년 12월 2일 흥익대 환경미화·경비원 174명 중 140명, 노조(전국공공서비스노조 흥익대분회) 설립
 - 12월 8일~12월 24일 노조와 청소·경비용역업체(항우종합관리, 인광엔지니어링), 3차례 임단협 교섭 개최 → 12월 31일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합의사항 없이 종료 → 12월 중 흥익대와 청소·경비용역업체(항우종합관리, 인광엔지니어링)의 용역계약 갱신 협상, 용역단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 12월

31일 용역계약기간 만료

- ※ 노조 요구사항: ▲시급 인상(4,110원 → 5,180원) ▲상여금 신설 ▲식대·명절수당 지급 등
- ※ 향우종합관리·인광엔지니어링 <홍익대> 입장: 용역기간을 3개월 연장하되, 향후 노사교섭으로 타결된 임금 등을 반영하여 용역단가를 소급 지급하고, 3개월 후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요구 <용역기간 3개월 연장기간 중 용역단가 계산은 2011년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및 타대학 미화원 임금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3개월 후 고용승계는 수용불가 입장>
- 1월 24일 홍익대, 용역입찰 설명회 개최(25개 업체 신청) → 1월 27일 청소·경비·시설부문 3개 용역업체 선정

◆ MBC

- 1월 28일(금) 10:00~12:10 중노위 2차 조정회의,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 2월 1일(화) 14:00 3차 조정회의 예정(조정기간만료일)
- ※ 노<사>쟁점
 - ▲임금: 기본급 7% 인상 <기본급 3% 인상>, ▲단협: 공정방송협의회 보직변경 규정 현행유지(공정방송협의회가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국장의 보직변경 요구시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 <기존 조항 삭제하고 “공정방송협의회는 출석위원 반수 이상 찬성으로 문책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으로 개정>
- 그간 노사는 2010년 10월 27일~2011년 1월 7일까지 11차례(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임단협 교섭 진행하였으나 진전없이 종료
 - 2011년 1월 6일 사측, 2010년도 임금협상 미타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안(기본급 3% 인상)대로 임금인상을 결정, 기본급 3% 인상 소급분 일방 지급
 - 1월 14일 사측, 노조측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항 고수를 이유로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 노조, 『단협 해지 통보는 김재철 사장의 연임(2월 신입사장 선임 예정)을 위한 것으로 결사항전 하겠다』는 성명 발표
 - 1월 17일 노조, 중노위에 임단협 조정신청
 - 1월 26일~1월 27일 노조 임원선거 실시 → 단독 출마한 정영하(위원장) - 정대균(수석부위원장) 후보조 당선(94.6%)
- ※ 재직 조합원 1,971명 중 1,599명 투표 → 찬성 1,513명(94.6%) **[KL]**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